

노무현 대통령 부산신항 공사현장 방문

부산 신 항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핵심인 물류 중심기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격려입니다. 제가 왜 왔는지 여러분도 짐작할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 개개인은 직업이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에 보람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회사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 대역사입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쳐다보는 사람은 간이 커지고 통이 커지겠다고 느꼈습니다. 돌발사고도 있고 일 자체는 힘들겠지만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산항의 전망에 대해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고 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화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화물을 빼앗기고 뺏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이 갖고 있는 위치나 운영효율성 등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입니다. 부산항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항만을 건설했는데 화물을 다 빼앗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 신 항은 동북아 최대의 항만이 될 것입니다. 부산 신 항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핵심인 물류 중심기지입니다. 동북아 물류기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특히 남측부두도 민자협상이 지체되지 않고 계속 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업여건을 돌아가는데 정부지원이 없어서 지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 십 년 후의 항만을 보고 누가 건설했는지 잘 지었다고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히 지어주십시오. 해양부장관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있어서 반갑습니다.